

2024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카드

[인문]

1. 일반 정보

| | | | |
|---------------|--|--|---|
| 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 | |
| 전형명 | 논술우수자 | | |
|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인문사회계열 | 문항번호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번 <input checked="" type="checkbox"/> 2번 |
| 출제범위 | 교육과정 과목명 |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경제 | |
| | 핵심 개념 및 용어 | 자유의지, 책임, 자유주의, 규범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 기능주의적 책임, 윤리, 법 | |
| 예상 소요시간 | 문항1: 70분, 문항2: 50분/ 전체 120분 | | |

2. 문항 및 자료

문제지와 동일

3. 출제 의도

본 논술고사는 제시된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제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제시된 글과 자료의 요지를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능력과 제시된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답안 작성 시 글 자료 해석과 데이터의 분석뿐 아니라 관련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의 응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이다.

논제는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그 중 첫 번째는 책임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즉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규범적 책임론’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책임의 근거를 설명하는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한 입장에 의거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인가, 아닌가’를 논하는 것이다. 글 자료는 두 관점을 정당화하거나 반박하는데 필요한 논거를 제공하는 지문으로 구성하였다. 인간이 가진 1차적·2차적 욕구, 자유의지를 근거로 수립된 현실 법제도의 구체적 판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진화론과 생명공학의 견해,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는 사회적 책임론의 필요 등에 관련된 제시문을 제공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반론하는데 논거로 삼도록 하였다. 두 번째 논제는 경제·사회·문화·환경적인 측면에서 한 나라의 발전 방향을 합리성에 기반하여 선택하고, 주어진 자료를 활용·분석하여 이 선택의 이유를 설명한 뒤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이다. 이 논제를 위해 명목 1인당 GDP, 산업비중, 온실가스 배출량, 소득의 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출산장려책과 이민정책에 따른 노년부양비와 사회갈등지수의 변동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선택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였다. 위 논제와 제시문은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국어』 등 교과서 내용에 준하여 제시되었으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모두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 |
|------------|---|
| 적용 교육과정 |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법과 작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독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언어와 매체 <input type="checkbox"/> 문학 |
| |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활과 윤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윤리와 사상 |
| |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고시 제2018-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합사회 <input type="checkbox"/> 한국지리 <input type="checkbox"/> 세계지리 <input type="checkbox"/> 세계사 <input type="checkbox"/> 동아시아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치와 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문화 |
| |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한국사 <input type="checkbox"/> 한국사 |

1. 국어과 교육과정

| 관련 제시문 | 성취기준 | 과목명: 국어 |
|---------|--------|---|
| (가)~(마) | 성취기준 1 |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
| | 성취기준 2 |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
| 관련 제시문 | 성취기준 | 과목명: 화법과 작문 |
| (가)~(마) | 성취기준 1 |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
| | 성취기준 2 |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
| 관련 제시문 | 성취기준 | 과목명: 독서 |
| (가)~(마) | 성취기준 1 |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 | 성취기준 2 |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
| 관련 제시문 | 성취기준 | 과목명: 언어와 매체 |
| (가)~(마) | 성취기준 1 |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

2. 도덕과 교육과정

| 관련 제시문 | 성취기준 | 과목명: 생활과 윤리 |
|--------|--------|--|
| (나) | 성취기준 1 |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
| (나) | 성취기준 2 | [12생윤01-02] 현대의 윤리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

| 관련 제시문 | 성취기준 | 과목명: 윤리와 사상 |
|--------|--------|---|
| (마) | 성취기준 1 | [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
| (마) | 성취기준 2 |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
| (다) | 성취기준 3 |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

3. 사회과 교육과정

| 관련 제시문 | 성취기준 | 과목명: 통합사회 |
|--------|--------|---|
| (마) | 성취기준 1 |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
| (가) | 성취기준 2 | [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
| (가) | 성취기준 3 |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

| 관련 제시문 | 성취기준 | 과목명: 사회문화 |
|---------------|--------|--|
| (자료 3) | 성취기준 1 | [12사문02-04]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
| (나), (다), (라) | 성취기준 2 |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
| (자료 2) | 성취기준 3 |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 (자료 3) | 성취기준 4 | [12사문05-0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로 인해 대두되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

| 관련 제시문 | 성취기준 | 과목명: 정치와 법 |
|----------|--------|--|
| (가), (라) | 성취기준 1 | [12정법05-01]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탐구한다. |

| 관련 제시문 | 성취기준 | 과목명: 경제 |
|----------------|--------|---|
| (자료 1) | 성취기준 1 |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 |
| (자료 1), (자료 2) | 성취기준 2 |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내 | | | | | | |
|--------|-------|--------|------|-----------------------|--------------------------|--------|
| 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년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국어 | 민현식 외 | 좋은책신사고 | 2020 | 214-215 | 공통 | ○ |
| 국어 | 신유식 외 | 미래엔 | 2020 | 116-133 | 공통 | ○ |
| 국어 | 이성영 외 | 천재교육 | 2020 | 205-233 | 공통 | ○ |
| 국어 | 박영민 외 | 비상교육 | 2020 | 164-207 | 공통 | ○ |
| 화법과 작문 | 이도영 외 | 창비 | 2020 | 160-181 | 공통 | ○ |
| 화법과 작문 | 민병곤 외 | 미래엔 | 2020 | 112-121, 162-173 | 공통 | ○ |
| 화법과 작문 | 박영목 외 | 천재교육 | 2020 | 152-169 | 공통 | ○ |
| 독서 | 방민호 외 | 미래엔 | 2020 | 71-129 | 공통 | ○ |
| 독서 | 한철우 외 | 비상교육 | 2020 | 40-63 | 공통 | ○ |
| 언어와 매체 | 방민호 외 | 미래엔 | 2020 | 90-109 | 공통 | ○ |
| 언어와 매체 | 민현식 외 | 천재교육 | 2020 | 154-171 | 공통 | ○ |
| 윤리와 사상 | 정창우 외 | 미래엔 | 2020 | 134-150,182-189 | (다), (마) | ○ |
| 윤리와 사상 | 류지한 외 | 비상교육 | 2020 | 128-149,177-184 | (다), (마) | ○ |
| 윤리와 사상 | 황인표 외 | 교학사 | 2020 | 135-154,185-193 | (다), (마) | ○ |
| 통합사회 | 이진석 외 | 지학사 | 2020 | 32, 180-185 | (가), (마) | ○ |
| 통합사회 | 박병기 외 | 비상교육 | 2020 | 31, 174-179 | (가), (마) | ○ |
| 통합사회 | 구정화 외 | 천재교육 | 2020 | 34, 178-189 | (가), (마) | ○ |
| 정치와 법 | 김왕근 외 | 천재교육 | 2020 | 146-167 | (가), (라) | ○ |
| 정치와 법 | 이경호 외 | 미래엔 | 2020 | 140-156 | (가), (라) | ○ |
| 정치와 법 | 정필운 외 | 비상교육 | 2020 | 139-146 | (가), (라) | ○ |
| 정치와 법 | 서범석 외 | 지학사 | 2020 | 146-162 | (가), (라) | ○ |
| 사회문화 | 손영찬 외 | 미래엔 | 2020 | 78-85 | (나), (다), (라) | ○ |
| 사회문화 | 신형민 외 | 비상교육 | 2020 | 77-81 | (나), (다), (라) | ○ |
| 사회문화 | 김영순 외 | 교학사 | 2020 | 78-85, 151-154 | (나), (다), (라), (자료 2) | ○ |
| 생활과 윤리 | 정창우 외 | 미래엔 | 2020 | 28, 95-97, 188-192 | (나), (자료 3) | ○ |
| 생활과 윤리 | 정탁준 외 | 지학사 | 2020 | 30-31, 95-90 | (나) | ○ |
| 생활과 윤리 | 김국현 외 | 비상교육 | 2020 | 29, 98-99 | (나) | ○ |
| 경제 | 김종호 외 | 씨마스 | 2020 | 81-85 | (자료 1), (자료 2) | ○ |
| 경제 | 허수미 외 | 지학사 | 2020 | 78-83 | (자료 1) | ○ |

| 교과서 외 | | | | | | |
|---------------|----------|-----|------|---------|-------|--------|
| 자료명(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년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자유의지와 결정론 | 게리 왓슨 엮음 | 서광사 | 1990 | 139-162 | (나) | ○ |
| 호모 데우스-미래의 역사 | 유발 하라리 | 김영사 | 2017 | 394-552 | (마) | ○ |

| 관련 교과서 근거 | | | | | | |
|-----------|-------|-----|------|-------|----------|--------|
| 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년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윤리와 사상 | 류지한 등 | 비상 | 2020 | 11-12 | (나), (마) | ○ |
| 윤리와 사상 | 황인표 등 | 교학사 | 2020 | 11-13 | (나), (마) | ○ |
| 윤리와 사상 | 박찬구 등 | 씨마스 | 2020 | 15-17 | (나), (마) | ○ |

5. 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과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문에 활용된 주요 개념과 지식은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을 취하였다. 제시된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1]은 제시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반론, 그리고 재반박에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사고 능력과 서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논제는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두 가지 책임론을 이해하고 그 중 하나의 입장에 의거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인가, 아닌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와 (라)는 ‘자유의지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이다’라는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자유의지에 토대한 2차적 욕구가 인간의 필수적 요소인 점, 자유의지를 근거로 수립된 현실 법제도의 구체적 판례 등을 제시하여 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다)와 (마)는 ‘자유의지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진화론과 생명공학의 발견,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는 사회적 책임론의 필요 등을 제시하여 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시문 (나)~(마) 중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전개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가)는 책임에 대한 두 관점의 핵심을 정리하고 논제의 취지를 이해하도록 제공한 글이다. 인간에게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규범적 책임’과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책임의 근거를 설명하는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으로 나누는 책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인간은 본능적·충동적인 1차적 욕구를 조절하는 2차적 욕구를 지닌 존재이며, 이러한 2차적 욕구에 의해 판단이 가능한 인격체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인간으로 변경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이러한 2차적 욕구를 설명하는 이 제시문은 인간 행동의 책임의 근거가 자유의지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지문이다. 이 지문은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의 입장을 지지하여 책임이란 개인의 자유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행위에 대해 물을 수 있다는 논거로 활용된다. 책임은 다른 인간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있다는 관점이기에 개인의 행위가 사

회에 어떤 위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그 행동 결과를 놓고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임의 주요기능은 사회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데 있기에 책임은 행위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회적 영향을 끼쳤는지를 통해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시문 (라)는 심신장애자 처벌 판례를 통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현재의 법·규범이 모두 자유의지를 책임의 근거로 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예를 현실 법체계에 적용해본 사례를 통해서 자유의지가 이미 현실적인 법체계의 토대라는 점을 유추하고, 이러한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면 인간 사회의 질서가 혼란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지문이다. 지금까지 인본주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일종의 비과학적인 믿음임을 설명한 글이다. 먼저 19세기의 진화론을 논거로 인간의 신체형질뿐 아니라 심리와 의지, 행동도 모두 생물학적 물질로 유전되는 것임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인간이 느끼는 소망도 사실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 진화론이 설명한 대로 인간이 생화학적 집합체임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데이터와 연산력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항 2]는 수험자가 경제 발전 속도가 더딘 어떤 나라의 정책 입안자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나라의 발전방향을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선택하고 이 선택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추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내고, 이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문제를 설계하여 수험자의 지적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파악하고자 했다.

자료는 전체 3개로, 각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자료 1)은 <자료 1-1>과 <자료 1-2>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1-1>에는 A, B, C 세 나라의 명목 1인당 GDP, 부가가치 기준 산업구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세 나라는 1980년에 세 가지 지표가 매우 비슷했으나, 2020년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1인당 GDP의 경우 2020년에 A국과 B국은 약 35,000 달러로 1980년 대비 빠르게 증가했지만, C국은 여전히 13,000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온실가스의 경우 세 나라 모두 증가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B국>A국>C국 순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 1-2>에는 이들 세 나라의 분위별 소득분포가 네모그림(box plot)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 세 나라의 소득격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때, 소득격차에 대한 정의는 (자료 2)에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자료를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1980년에 소득 격차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세 나라가 2020년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바, A국의 소득격차는 100,000 달러 이상, B국과 C국의 소득격차는 100,000 달러 이하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 2)에는 60개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 대해 1인당 GDP와 소득격차별로 삶의 만족도를 구분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큰 국가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은 7/15이며,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작은 국가는 이 확률이 13/15이다. A국은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큰 국가로 분류하고 B국은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작은 국가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B국이 A국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해석할 수 있다.

(자료 3)에는 고령화 대응 정책에 따른 30개 국가의 노년부양비, 사회갈등지수, 사회역동성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고령화 대응 정책은 (1) 출산장려책, (2) 출산장려책 + 소극적 이민정책, (3) 출산장려책 +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정책에 따라 상기 세 가지 지표와 지수의 변화 및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출산장려책과 적극적 이민정책을 추진한 A국의 경우 노년 부양비는 줄어드나, 사회갈등지수는 B국에 비해 높고, 사회역동성지수 또한 B국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B국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론 가능하다.

위 세 자료를 종합했을 때, C국이 A국 모델을 선택했을 때는 B국 모델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고, 노년부양비가 작으며, 사회역동성지수는 높아질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C국이 B국 모델을 선택했을 때는 A국 모델에 비해 소득격차는 작고, 삶의 만족도는 높으며, 사회갈등지수는 낮아질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해당 국가 모델을 선택하는 이유가 된다. 선택된 모델에 해당하는 국가가 가진 약점이, C국이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 수험생이 한 가지 문제점을 택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득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소득분배정책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6. 채점 기준

[문항 1] 채점 기준

| 평가항목 | 채점 기준 | | 배점 |
|--|--|---|-----------|
| ■ 제시문 (가)~(마)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정당화 | | | |
| |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임’을 선택(주장 1) |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가 아님’을 선택(주장 2) | |
| 제시문 (가)를 활용한 입장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적 책임론을 선택 - 자유의지가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라고 주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을 선택 - 인간의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 | 10 |
| 제시문 (나)~(마)를 활용하여 선택을 정당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본능적·충동적인 1차적 욕구를 조절하는 2차적 욕구를 지님 • 인간은 자유의지에 토대한 2차적 욕구에 의해 판단이 가능한 인격체가 됨 - (라)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장애자 처벌 판례에서 보듯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규범은 자유의지에 근거한 책임 위에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화론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도 생물학적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 • 생명공학은 인간을 자유의지가 아닌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로 이해 - (다)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와 책임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짐 • 자유의지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책임이 부과되어야 함 | 15 |
| ■ 제시문 (나)~(마)를 활용한 자신이 선택한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 | | |
| | 주장 1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 주장 2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 |
| 제시문 (나)~(마)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화론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도 생물학적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 • 생명공학은 인간을 자유의지가 아닌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로 이해 - (다)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와 책임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짐 • 자유의지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책임이 부과되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본능적·충동적인 1차적 욕구를 조절하는 2차적 욕구를 지님 • 인간은 자유의지에 토대한 2차적 욕구에 의해 판단이 가능한 인격체가 됨 - (라)의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장애자 처벌 판례에서 보듯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규범은 자유의지에 근거한 책임 위에 수립 | 15 |
| ■ 반론에서 제기된 논거에 대한 재반박 | | | |
| | 주장 1 입장에서의 재반박 논리(예시) | 주장 2 입장에서의 재반박 논리(예시) | |
| 재반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논리적으로 재반박이 되는지를 평가(재반박 근거의 예시) • 인간이 생화학적 집합체라는 점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님(자기 희생, 사랑 등) • 인간의 자유의지를 책임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 처벌이 난무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논리적으로 재반박이 되는지를 평가(재반박 근거의 예시) • 2차적 욕구를 인간만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 부족 • 자유의지 부족을 이유로 법적 처벌 회피 남용 사례가 많아지고 사회질서 유지에 문제 발생 | 10 |
| 글의 논리성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10점 이내에서 점수 부과) | | 10 |
| 점수 | | | 60 |

[문항 2] 채점 기준

| 평가항목 | 채점 기준 | 배점 | | | |
|---|--|----------|----------|---|---|
| (자료 1) ~ (자료 3) 해석 | 주어진 세 자료의 해석 | 30 | | | |
| | ■ (자료 1)의 분석(10점) - <자료 1-1> 분석 • A국: IT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B국보다 천천히 증가 • B국: 제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A국보다 빠르게 증가 - <자료 1-2> 분석: A국의 소득격차가 B국보다 커짐 ■ (자료 2)의 분석과 해석(10점) - <자료 2-1> 분석: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큰 국가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7/15이고,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작은 국가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13/15임 - 해석: B국이 A국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큼 ■ (자료 3)의 분석과 해석(10점) - <자료 3-1> 분석: 출산장려책+적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국가는 다른 정책을 취한 국가에 비해 노년부양비가 낮아짐 - <자료 3-2> 분석: 출산장려책+적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국가는 다른 정책을 취한 국가에 비해 사회갈등지수가 크고 사회역동성지수가 큼 - 해석: 출산장려책+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A국에서는 정책 시행 후 B국에 비해 노년부양비는 하락하고, 사회역동성과 사회갈등은 클 가능성이 큼. B국을 선택 시, 반대의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큼 | | | | |
| | 종합 해석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A국 모델 선택</th> <th style="width: 50%;">B국 모델 선택</th> </tr> </thead> <tbody> <tr> <td> - A국 모델을 선택할 때, B국 모델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천천히 증가하고 노년부양비가 더 낮아지며, 사회역동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음 - A국 모델을 선택할 때, 소득격차가 커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낮고, 사회갈등이 높은 문제점 발생 - 문제점 해결방안의 예시 •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소득 분배정책을 실시 •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사회갈등을 완화 </td> <td> - B국 모델을 선택할 때, A국 모델에 비해 소득격차가 작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갈등이 낮음 - B국 모델을 선택할 때, A국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노년부양비가 더 높아지며, 사회역동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 - 문제점 해결방안의 예시 •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 • 청년연장,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활동 인구 부담 완화 </td> </tr> </tbody> </table> | A국 모델 선택 | B국 모델 선택 | - A국 모델을 선택할 때, B국 모델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천천히 증가하고 노년부양비가 더 낮아지며, 사회역동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음 - A국 모델을 선택할 때, 소득격차가 커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낮고, 사회갈등이 높은 문제점 발생 - 문제점 해결방안의 예시 •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소득 분배정책을 실시 •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사회갈등을 완화 | - B국 모델을 선택할 때, A국 모델에 비해 소득격차가 작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갈등이 낮음 - B국 모델을 선택할 때, A국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노년부양비가 더 높아지며, 사회역동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 - 문제점 해결방안의 예시 •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 • 청년연장,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활동 인구 부담 완화 |
| A국 모델 선택 | B국 모델 선택 | | | | |
| - A국 모델을 선택할 때, B국 모델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천천히 증가하고 노년부양비가 더 낮아지며, 사회역동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음 - A국 모델을 선택할 때, 소득격차가 커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낮고, 사회갈등이 높은 문제점 발생 - 문제점 해결방안의 예시 •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소득 분배정책을 실시 •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사회갈등을 완화 | - B국 모델을 선택할 때, A국 모델에 비해 소득격차가 작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갈등이 낮음 - B국 모델을 선택할 때, A국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노년부양비가 더 높아지며, 사회역동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 - 문제점 해결방안의 예시 •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 • 청년연장,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활동 인구 부담 완화 | | | | |
| 점수 | 40 | | | | |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

1, 2번 문항 각각 10점 이내 감점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

| | | | |
|----|-----------------------|---------------------|----------|
| 1번 |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 (-)10점까지 |
| | 500자 - 699자 | 10점 감점(-) | |
| | 700자 - 899자 | 5점 감점(-) | |
| | 900자 - 1,100자 | 감점 없음 | |
| | 1,100자 초과 | 5점 감점(-) | |
| 2번 |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 |
| | 340자 - 439자 | 10점 감점(-) | |
| | 440자 - 539자 | 5점 감점(-) | |
| | 540자 - 660자 | 감점 없음 | |
| | 660자 초과 | 5점 감점(-) | |

7. 예시 답안

[문항 1] 예시 답안

•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임’을 선택(주장 1)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을 선택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규범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총동적인 1차적 욕구를 조절하는 2차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1차적 욕구만이 아니라 그것을 반성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지에 기반한 2차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이러한 2차적 욕구를 지님으로써 비로소 인격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행위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도 2차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을 어겼기 때문이다. 둘째, 제시문 (라)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약화된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하고,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은 형을 면제한 여러 판례에서 보듯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현재의 법·규범은 모두 자유의지를 책임의 근거로 삼아 수립된 제도이다. 현실의 법체계에서 책임의 근거가 되는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면 인간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시문 (마)처럼, 인간의 심리와 행동은 두뇌나 유전자 등과 같이 타고난 생물학적 물질에 프로그램된 것의 결과라고 보는 진화론이나, 인간을 자유의지가 아닌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로 이해하는 유전공학·생명공학 등을 내세우며 자유의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다)에서처럼, 자유와 책임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며,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을 자유의지가 없는 생화학적 집합체로 보는 과학계 일부의 주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사회질서 유지가 책임의 근거가 된다면, 책임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 처벌이 난무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인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유의지에 근거해야만 한다.

[1,038자]

•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가 아님’을 선택(주장 2)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을 선택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은 책임이 사회질서 유지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지가 아닌 사회적 규범에서 찾는다. 따라서 행위자가 사회적 규범을 위반할 경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예방적 목적에서도 행위자를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이 자유의지를 책임의 근거로 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찍이 진화론은 인간의 본성뿐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행동마저도 생물학적인 물질로 프로그램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최근에 발전한 생명공학, 유전공학, 뇌과학은 인간을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생화학적 집합체로 정의한다. 이들의 발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도 물리화학적 인과율을 따르는 신경작용의 결과이기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둘째로 책임이란 개인의 행위가 인간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에 끼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의 중요한 기능은 사회질서 유지에 있기에 개개인의 행위도 그 행위의 사회적 영향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책임의 근거는 사회적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1차적인 본능적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2차적 욕구가 있으며, 이런 2차적 욕구를 통해 인격이 형성되고 중요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심신장애자 처벌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과 규범도 자유의지에 기반하여 수립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들의 이타적인 행동에서 알 수 있듯이 본능적인 1차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을 인간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근거로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경우 일시적 심신장애와 같은 이유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를 남용할 수도 있어 오히려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030자]

[문항 2] 예시 답안

• A국 모델 선택

A국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자료 1)을 보면 A국은 IT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B국은 제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A국이 B국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천천히 증가한다. 또한, A국의 소득격차는 B국에 비해 더 커진다. (자료 2)에서 A국은 소득수준과 소득격차가 모두 높은 국가로, B국은 소득수준이 높지만 소득격차가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각국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은 각각 7/15과 13/15으로 B국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더 크다. (자료 3)을 보면 출산장려책+적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A국은 출산장려책+소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B국에 비해 향후 노년부양비가 낮아지고 사회역동성지수와 사회갈등지수 모두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A국 모델이 IT산업 중심의 친환경적 경제발전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역동성을 강화하면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다. 다만, A국 모델은 B국에 비해 소득격차가 더 크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더 낮으며 사회갈등이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 중 중요한 문제점인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소득분배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600자]

• B국 모델 선택

B국 모델이 바람직하다. 우선 <자료 1-1>에 의하면 A, B 두 국가의 명목 1인당 GDP는 비슷하게 높은 수준이지만, <자료 1-2>에 따르면 B국의 소득격차가 A국보다 작다. 또한 <자료 2-1>에 의하면,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작은 국가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13/15이지만,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큰 국가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7/15이므로, A국보다 B국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자료 3-2>에 의하면, 출산장려책+소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경우가 다른 정책을 취한 경우보다 사회갈등지수가 낮으므로, B국이 A국보다 사회갈등이 적을 것이다. 다만, <자료 1-1>을 보면 제조업 중심인 B국은 IT 중심인 A국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 또한 <자료 3-1>과 <자료 3-2>에서 보면, B국과 같이 출산장려책+소극적 이민정책을 취할 경우에는 A국 모델에 비해 노년부양비가 높고 사회역동성지수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B국 모델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빠른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등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607자]